

[學 會 消 息]

■ 曾憲義 중국법제사학회장

중화인민공화국 법제사학회 회장이며 북경의 중국인민대학 法律案 主任 法學院 副院長인 曾憲義(Zeng Xianyi) 박사가 지난 3월 20일 서울대 법대의 법학연구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하였다. 19일 호암생활관에서 「중국에서의 法制史研究」라는 제목으로 한국法史學會 모임에서 발표하고 담론을 나눴다.

■ 「慣習調查報告書」국역 발간

한국법제연구원은 1905년 韓國에 梅謙次郎의 주도로 실시한 「관습조사보고서」를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관습법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서 이만큼의 관습법 조사는 前無後無하다. 국역본은 한국 법제사 연구와 각 실정법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헬렌 실빙博士 追慕會」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지난 5월7일 헬렌실빙(Helen Silving)박사에 대한 추모회를 개최하였다. 실빙박사는 세계적 형법학자로서 劉基天박사의 부인으로 1964년과 1967~68년에 서울법대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난 2월26일 미국 샌디에고(San Diego)에서 서거하였다. 실빙박사의 학문과 생애는 헬렌실빙회고록(Helen silving memoir, 1988, Newyork)으로 남겨져 있다

■ 윌리엄 쇼오박사 서거

미국인으로 한국법제사 연구에 남다른 애착을 가져온 윌리엄 쇼오(William Show)박사가 1993년 2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심장마비로 49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선교사인 조부, 부친의 뒤를 이어 한국연구에 일생을 바친 그는 서울대 법대에서 한국법제사를 강의한 바 있다. 저서로 한국의 秋官志, 審理錄을 번역하

여 붙인 *Legal Norms in a Confucian state*, (Berkeley, 1981)와 논문들이 있다.

■ 서울法大 「貴重文書室」개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지난 3월 20일 법학연구관을 개관하고 3층에 「귀중문서실」(Treasure Room)을 개설하였다. 여기에는 한국의 法學史와 法制史에 관한 귀중한 문서들이 보관·전시된다. 특히 兪鎭午, 金曾漢 등 한국의 작고 법학자들에 관한 一切의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보관할 계획이다.

■ 박병호회장 학회기금 출연

박병호회장은 지난 91년 10월31일의 환갑기념논문집증정식을 마친후 한국법사학회 발전을 위해 200만원의 성금을 출연하였다.